

2018년 2월 3일 “(성경의 큰 숲 보기 3)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출 12:37-42; 19:3-6)

<도입>

창세기는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모두 요셉이 총리로 다스리는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된 이야기를 끝으로 전합니다. 그곳서 400년 넘게 살면서 번성했는데 출애굽기는 그들이 학대를 받아 노예로 전락하게 된 이야기로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번성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입니다(창 12:2 참고). 출애굽기는 이들이 자유인이 되어 약속의 땅으로 다가가는 성취 과정과 율법(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 출애굽기 구조

- (1) 1~11 장 - 출애굽까지의 과정
- (2) 12~18 장 - 어린 양의 피; 삶 의 전환(애굽으로부터)
- (3) 19~40 장 - 시내산 언약(11 달 체류)
 - i. 19~31 장: 언약체결(십계명과 율례들, 성막 설계도)
 - ii. 32~34 장: 언약 파기 - 모세의 중보 - 언약의 갱신
 - iii. 35~40 장: 백성의 재 다짐 → 성막(제사) 중심의 삶

[1] 출애굽

애굽의 노예로 살던 백성은 조상 아브라함-이삭-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수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압제와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출 2:23-26 읽으세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행하신 첫번째 일은, 애굽의 왕자로 성장했지만 후에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 살던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셔서 당신을 예배하도록 백성들을 광야로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는 이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열 번째(마지막) 재앙으로 죽음의 사자를 보내셔서 장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 주변에 발라 놓음으로써 죽음의 사자가 그들의 집을 뛰어넘어 가게 됩니다(= 유월(Passover)). 이 밤을 기념하여 유월절로 지킵니다.

바로는 결국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지만 곧 변심해서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흥해가 갈라져서 건너가 광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추격하던 바로의 군사들은 수장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의 point:

- (1)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게 한 어린양의 피입니다. 그들은 이 피로 인하여 구원받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여자의 후손(3:15), 또 네(아브라함) 씨(22:1, 자손)라는 말이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어린양이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 (2) 흥해는 애굽의 옛 삶으로부터 광야의 새 삶으로 구별시킵니다. 물에 들어가면 죽지만 물이 갈라져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애굽으로부터 해방(새 삶)을 의미합니다.

[2] 광야의 시내산 언약

출애굽 후 두 달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19:1). 시내산으로 올라가 들은 주의 말씀을 모세가 전하자(19:3-6) 백성은 모두 동의했습니다(19:8). 그리고 20-23 장에서 율법, 즉, 십계명과 율례를 주십니다. 율례는 세 영역으로 나뉩니다: 사회 영역(중, 폭력, 배상 등...), 도덕 영역(결혼, 약하고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 종교 영역(안식년(일), 세 절기). 백성들은 이것을 따르겠다고 최종 동의했고, 수송아지들의 피로써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체결했습니다(24:3).

율법(십계명과 율례)은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1) 율법은 **이스라엘을 보존합니다**. 동의하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지만 거절/파기하면 이 민족은 보존되지 못합니다(19:5-6). 율법(말씀) 안에서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형성함으로써 보존되는 것입니다.
- (2) 율법은 그리스도가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입니다. 율법을 순종할 때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됩니다.
- (3) 율법은 **제사장 나라**를 신설합니다(19:6). 역사의 모든 나라는 제국의 방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당신이 뜻하시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열방이 하나님 나라의 복지를 함께 누리기 위해 다른 나라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역할을 감당합니다. 세상 제국은 기득권자들이 조정하고 부와 힘을 나누지 않으면서 정의와 봉사를 말합니다. 이런 제국에서는 개혁이 일어나도 자리에 사람만 바뀌고 제도와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에서는 높은 사람들이 과부와 고아, 가난한 사람, 나그네를 우대합니다.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영적 가난한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국과는 반대의 가치관과 방식을 실행합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정의이고 백성들은 섬김을 통해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제사장 나라로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맺음>

오늘 날 교회가 제사장 나라의 존재 방식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백성은 에고를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따라 자아의 죽음을 죽는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어서 교회는 고통하고 있습니다. 계속 힘있는 제국이 되려 하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결코 피어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는 언약을 파기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갱신되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지 살피겠습니다. 구원받은(출애급한) 백성들을 언약의 말씀으로 보존하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제사장 나라의 의미를 묵상하며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그 나라의 꽃이 활짝 피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출애급 사건의 전모를 잘 이해하도록 서로 도와주세요. 위에서 언급한 출애급에서 중요한 포인트 두 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2. 하나님은 어떤 특징을 갖는 제사장 나라를 원하셨는지 성경을 찾아 보면서 자유롭게 말씀해 보십시오.
3. 오늘날 제사장 나라의 진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우리)의 어떠한 결단이 필요할까요? 자신의 생각을 나누어 보십시오.